

#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김연수

(이화여자대학교)

## [요 약]

본 연구는 돌봄경험의 긍정적 측면을 조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돌봄만족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어떤 요인들이 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자는 서울 및 경인지역의 지역정신보건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낮병원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이며, 총 231명이다. 돌봄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정신장애 관련 요인으로 정신장애인의 유병기간, 입원횟수 및 사회기능이, 어머니의 개인적 요인으로 연령, 결혼 상태, 가족수입, 신체적 건강이, 그리고 관계적 요인으로 정신장애인과 어머니관계의 질과 어머니가 가족, 친구 및 의미 있는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받는 사회적 지지가 포함되었다. 자료분석을 위해 t-test, Oneway-ANOVA,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등이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은 5점 척도에서 평균 3.06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최종 회귀분석모델에서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의 결혼상태, 가족수입, 정신장애인과 관계의 질, 그리고 사회적 지지였으며, 정신장애인의 사회기능 등 정신장애 관련 요인은 돌봄만족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돌봄경험의 긍정적 측면으로 실재하는 돌봄만족감에 대한 실천적 관심이 필요함과 더불어 이를 증진하기 위한 사회복지실천적 개입 방안이 연구의 함의로 제시되었다.

주제어: 돌봄만족감, 돌봄경험의 긍정적 측면, 정신장애인의 어머니

## 1. 서론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자녀양육과 보호 및 가족 내 노약자나 장애인에 대한 보호제공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정신장애 발생 시 어머니는 일차적 보호제공자로 정신장애인 자녀의 재활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정신장애인의 어머니에 대한 관점은 시대에 따

라 변화하였는데 과거에는 병리적 관점에 의거하여 정신질환의 원인제공자로 건강한 자녀 양육기술을 소유하지 못한 변화 대상자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정신의약물의 발달과 지역사회중심의 치료가 주류를 이루게 되면서 정신장애인의 어머니는 정신장애인 치료의 동반자이자 지지자로서 역할이 중요해졌다. 또한 강점관점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어머니를 주요 클라이언트체계이자 자원체제로 보고 강점을 찾아 강화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긍정심리(positive psychology)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치료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강점을 구축해나가는 것이며, 인생의 최선을 구축해나가기 위한 변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Seligman, 2002). 이와 같은 강점을 중심으로 한 임상적 개입의 변화추세는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의 부담감과 고통을 넘어서 돌봄경험을 통해 얻게 된 강점 및 잠재력을 발견하고, 돌봄경험을 만족과 보상이 있는 과정으로 인식하여 긍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실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개 정신장애는 한 번 발병하면 만성화되어 장기적으로 지속되며, 사회적 기능에 손상을 유발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의 경험은 매우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파악되었다. 정신장애를 유발하는 대표적 질병인 정신분열병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경험을 연구한 결과 어머니는 자녀의 퇴행적 행위를 보는 데서 오는 기막힌 감정과 변화된 자녀의 생활패턴을 따라가야 하는 부담감, 재발에 대한 두려움 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어려움들로 인해 ‘삶의 부담’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민, 1995). 이와 같은 부담감에 대한 관심은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연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으며, 이를 주제로 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Thompson · Doll, 1982; Hatfield · Lefley, 1993; Reinhard, 1994; 양옥경, 1995; 강동호 · 김철권 · 변원탄, 1995). 또한 정신장애인의 가족은 수치심, 죄의식, 분노, 예후에 대한 불확신, 경제적 부담, 사회의 부정적 태도, 지지체계의 결여 등으로 여러 가지 고통과 정서적 부담을 경험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홍순원 · 이병옥 · 이수일, 1994; 최해경, 2000). 그러나 최근에는 정신장애의 초기단계에 가족은 좌절과 절망감을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신장애에 대한 대처능력이 증가하게 되는 자연적 성장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주장과 함께(Cook · Cohler · Pickett · Beeler, 1997), 돌봄경험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에 초점을 둔 연구가 시도되기 시작하였다(Greenberg · Seltzer · Greenley, 1993; Bulger · Wandersman · Goldman, 1993; Schwartz · Gidron, 2002; Baronet, 2003).

돌봄만족감이란 돌봄경험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대변하는 개념으로 돌봄경험으로부터 얻게 되는 긍정적 정서나 바람직한 측면들, 심리적 및 정서적 보상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돌봄만족감에 대한 연구는 비록 정신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일은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를 요하는 일이지만 돌봄경험은 삶에 의미를 주고 자기성장을 증진하는 만족과 보상이 있는 긍정적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한 긍정적 재해석 또는 재평가가 자기성장 및 배움의 경험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Schwartz, 2003), 돌봄경험의 과정을 긍정적 차원에서 재조명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돌봄만족감에 대한 연구는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더 강해지는 인간의 잠재력과 능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강점관점과 긴밀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신장애인 자녀를 장기간 돌보아야 하는

역경으로부터 다시 일어나 강해지고 이를 통해 자기성장을 이루며, 궁극적으로 역경에 대해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레질리언스 접근과도 연계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것은 어머니에게 생애과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업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실천에서 부담이나 고통 등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 보다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인간적 성장이나 보람 등 돌봄만족감에 초점을 둔 개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돌봄만족감은 보호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 하는 연구결과도 있다.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보호제공자, 성인정신지체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돌봄만족감은 보호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에 직접적 영향을 갖는다는 것이 검증되었다(Lawton · Moss · Glicksman · Rovine, 1991; Smith, 1996; Noonan · Ternstedt, 1997; Schwarz, 1999). 돌봄만족감의 이와 같은 중요성은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돌봄만족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신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국내연구들은 가족들의 부담감, 고통, 불안, 걱정, 우울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며(이정식 · 김광일 · 오동열, 1991; 강동호 · 김철권 · 변원탄, 1995; 양옥경, 1995; 최혜경, 2000), 돌봄만족감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지 시도되지 못하였다. 국내의 경우 돌봄경험의 긍정적 측면으로서 돌봄만족감을 다룬 연구는 노인과 뇌졸중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을 대상으로 시도된 적이 있을 뿐이다(김윤정 · 최혜경, 1993; 양옥경, 2000; 김용재 · 현경자 · 유정화,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성인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일차적 보호제공자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돌봄경험에 대한 긍정적 측면으로서 돌봄만족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돌봄만족감의 예측인자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첫째, 정신장애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부담감 중심 연구가 간과한 돌봄경험의 긍정적 측면을 돌봄만족감의 개념으로 재조명하여 정신장애인 가족연구의 영역을 확장하였다는 점과 둘째, 돌봄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정신장애인의 어머니들이 자신의 역할과 경험을 만족스러운 것으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실천의 함의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갖는다.

<연구질문 1>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의 돌봄만족감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질문 2>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2. 이론적 고찰

### 1) 돌봄만족감의 개념

돌봄만족감(caregiving satisfaction/gratification)이란 돌봄경험에서 인지적 재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돌봄경험의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긍정적 측면을 발견하려는 시도에서 연구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이는 돌봄경험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가 부담감 중심의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돌봄경험을 통해 얻는 만족이나 보상 등 긍정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돌봄경험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대변하는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다(Lawton et al, 1991).

돌봄만족감이란 돌봄경험으로부터 얻게 되는 긍정적 정서나 바람직한 측면들, 심리적 및 정서적 보상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여기에는 돌봄경험 자체를 통해 얻게 되는 기쁨이나 행복, 가치감, 및 자기성장과 강점의 발견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다(Lawton et al, 1991; Orbell · Hopkins · Gillies, 1993; Schwartz, 2003).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돌봄만족감 연구에서는 부모로서 의무를 다한 것,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 지에 관해 더 생각하게 된 것, 자신의 내적 강점과 개인적 한계에 관해 알게 된 것, 새로운 일들을 배우게 된 것(Greenberg · Greenley · Benedict, 1994; Schwartz · Gidron, 2002; Schwartz, 2003) 등이 돌봄만족감의 내용으로 파악되기도 하였다. 또한 돌봄경험은 부모에게 개인적 성장과 보다 깊은 자기이해의 과정이 될 수 있고, 인간적으로 더 강해지고, 인내심이 생기며, 다른 사람에 대해 더 민감하게 되고 공감하는 능력과 복지서비스에 대해 더 소신 있게 요구하는 능력 등을 증진시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Bulger et al, 1993). 즉, 돌봄경험은 자기실현의 과정이 될 수 있으며, 어려움에 대처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내적자원을 인식하게 되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변화하게 되어, 작은 성취에도 감사하게 되며,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과 자신에 관해 더 알게 된 것으로부터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Schwartz · Gidron, 2002).

돌봄경험에 이와 같은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것은 사회교환이론이나 실존주의적 관점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사회교환이론에 근거한 연구자들은 인간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보상을 최대화하고 대가를 최소화하려는 존재이므로 보호제공이 지속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간, 노력, 신체적 · 정서적 고갈 등의 대가를 상쇄할 수 있는 돌봄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보상이나 만족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Walker · Martin · Jones, 1992; Picot, 1995). 또한 실존주의적 관점에서는 인간을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를 추구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돌봄경험을 인간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고, 의미를 발견하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경험으로 보며, 돌봄경험에 부여하는 다양한 긍정적인 의미들을 강조하였다(Farran, 1997).

요약하면, 돌봄만족감이란 돌봄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기쁨이나 행복 등 긍정적 정서와 보상 및 자

기성장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돌봄경험에 대해 보호제공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긍정적 측면의 인지적 및 정서적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 2) 돌봄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된 실증적 연구결과들을 참조하여 정신장애 관련 요인, 어머니의 개인적 요인, 그리고 관계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정신장애 관련 요인에는 정신장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인으로 유병기간, 입원횟수,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사회기능이 포함되었다.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의 개인적 요인에는 어머니의 연령, 결혼상태, 가족수입, 그리고 신체적 건강이 포함되었다. 관계적 요인은 어머니가 주변의 중요한 사람과 맺는 관계가 포함되는 변인으로 정신장애인과 어머니관계의 질과 어머니가 가족, 친구 및 의미 있는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받는 사회적 지지가 포함되었다.

### (1) 정신장애 관련 요인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장애 관련 요인은 정신장애인의 유병기간, 입원횟수 및 사회기능으로 구성되었다.

정신장애인의 유병기간과 입원횟수가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기존의 실증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유병기간과 입원횟수는 정신장애와 관련된 기본적 정보를 주는 변인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변인들이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적 수준에서 알아보았다. 정신장애인의 사회기능은 증상 및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수행하는 자기관리, 대인관계 및 사회적 접촉,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직업기술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2005)에서는 정신장애인을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 정신장애인의 사회기능은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역할 수행과 대인관계 등 사회적 차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평가하는 영역은 여러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정신장애인의 사회 기능을 평가하는 영역으로 현행 장애인복지법(2005)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사회기능 수준을 ‘능력장애의 정도’로 규정하면서 이를 판단하는 차원으로 첫째, 적절한 음식섭취 능력, 둘째,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 청결유지 능력, 셋째,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 대인관계 능력, 넷째, 규칙적인 통원 및 약물복용, 다섯째,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그리고 여섯째,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 이용능력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사회기능은 증상과 구분되는 범주를 가진다는 것을 강조하며 섭식, 청결유지 등 자기관리기능,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등 사회생활기능, 가정내 활동과 가족관계가 포함된 가정생활기능, 그리고 직업 및 학업기능의 범주로도 구분되었다(손명자·박동건·최영희·이선희·배정규, 2001).

이와 같은 정신장애인의 사회기능은 연구자에 따라 부적응 행동, 문제행동 및 증상행동이라는 변수로 보호제공자의 돌봄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존 연구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사회기능이나 문제행동이 돌봄만족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적이지 못하고 각 연구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정신분열증 또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50세 이상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녀의 부적응적 행동은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부적응적 행동이 증가할수록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Pruchno · Patrick · Burant, 1997). 스트레스과정 모델을 사용하여 정신질환 자녀를 돌보는 105명의 어머니와 정신지체 자녀를 돌보는 208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녀의 문제행동은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며, 문제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reenberg et al, 1993).

한편,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이 있는 배우자 또는 성인자녀를 돌보는 97명의 가족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증상행동은 가족원의 돌봄만족감과 부적 상관관계( $r=-.37$ ,  $p<.05$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증상행동이 증가할수록 돌봄만족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증상행동은 돌봄만족감에 유의미한 직접적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Baronet, 2003). 또한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626명의 가족원을 대상으로 돌봄만족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돌봄경험의 긍정적 측면'을 측정된 연구에서 정신장애인의 사회기능은 보호제공자가 인식한 긍정적 돌봄경험에 유의미한 직접적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Szmukler · Burgees · Herrman · Benson · Colusa · Bloch, 1996).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검토해볼 때, 연구대상자에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녀의 문제행동은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에 유의미한 직접적 영향력을 가졌으나 정신장애인의 어머니와 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정신장애인의 문제행동이나 사회기능이 어머니와 가족원의 돌봄만족감과 부적상관관계를 갖지만 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결과를 구분해볼 수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사회기능과 어머니의 돌봄만족감 간의 영향관계에 대해서 현재까지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신장애인의 유병기간 및 입원횟수가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해서 참고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한다.

## (2) 어머니의 개인적 요인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개인적 요인에는 연령, 결혼상태, 가족수입, 신체적 건강이 포함되었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정신질환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와 정신지체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연령, 결혼상태는 돌봄만족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Greenberg et al, 1993). 그러나 이 연구에서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은 자녀가 정신지체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 돌봄만족감을 증진하는 것으로 검증되어 어머니의 결혼상태가 돌봄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제시해주었다. 성인 정신분열증 자녀를 돌보는 6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연

령이 증가할수록 돌봄만족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ulger et al, 1993). 그러나 수입과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수입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돌봄만족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에 반해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97명의 가족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보호제공자의 연령은 돌봄만족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으며, 연령이 어릴수록 돌봄만족감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aronet, 2003). 또한 정신장애 또는 신체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167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도 부모의 연령이 어릴수록 돌봄경험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chwartz, 2003). 그러나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들과 달리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93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교육수준 등은 돌봄만족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Schwartz · Gidron, 2002).

이상과 같이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 또는 가족원을 대상으로 돌봄만족감을 연구한 결과 개인적 요인이 돌봄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은 각 연구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3) 관계적 요인

#### ① 정신장애인과 어머니관계의 질

정신장애인의 일차적 보호제공자인 어머니와 정신장애인의 관계의 질이란 상호간의 정서적 유대관계로 어머니와 정신장애인 간의 친밀한 관계는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재활에 도움과 지지를 주는 원천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 관계를 통해 정신장애인은 노년기에 접어든 어머니에게 정서적 지지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실제적 도움을 제공할 수도 있으므로(Schwartz · Gidron, 2002; Greenberg, 1995) 정신장애인과 어머니관계의 질은 양자에게 모두 유익을 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족원 간의 친밀한 관계란 가족구성원이 서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것으로서 애정, 이타심, 즐거움, 만족, 개방성, 존중, 결속력, 그리고 헌신 등과 같은 정서적 요소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Walker · Thompson, 1983).

정신분열증 자녀를 돌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자녀간의 관계의 질이 부모의 돌봄만족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 결과 부모와 정신장애인 자녀 간의 친밀한 관계는 돌봄만족감과 높은 상관관계( $r=.78, p<.05$ )를 가지며, 이를 증진하는데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ulger et al, 1993). 또한 이 연구에서 부모자녀간의 갈등적 관계는 부모의 돌봄만족감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부모와 정신장애인간 관계의 질이 부모가 돌봄경험을 만족스러운 것으로 인식하는데 중요한 영향요인이 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원과 정신장애인의 관계의 질을 ‘관계적 어려움’이라는 변수를 사용하여 가족원의 돌봄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도 있다(Baronet, 2003). 이 연구에서 관계적 어려움은 가족사정척도(McMaster Family Assessment Device: FAD) 가운데 일반적 기능을 묻는 하위척도를 사용하여 상호적 이해, 지지, 의사소통, 수용, 공유, 동의하는 능력, 서로 사이좋게 어울리는 능력 등을 질문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연구 결과 가족원과 정신장애인간의 관계적 어려움은 다른 상황적 변수, 스트레스변수, 개인적 변수들의 영향력이 통제된 후에 돌봄만족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 $r=-.56$ ,

$p<.05$ )를 가졌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 정신장애인가의 동거, 돌봄제공자 연령, 친족관계의 종류, 증상행동, 그리고 객관적 부담은 가족원의 돌봄 만족감의 24%를 설명하였으며, 정신장애인가의 관계적 어려움은 이에 추가로 돌봄만족감의 16%를 유의미하게 더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장애가 있는 성인자녀와의 관계의 질이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로 정신지체자녀를 돌보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도 있다(Miltiades · Pruchno, 2002). 이 연구에서 어머니와 정신지체자녀와의 관계의 질은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를 얼마나 가깝게 느끼는지, 함께 어울려 좋은 시간을 보내는지 등을 질문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연구결과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어머니의 돌봄만족감 수준이 높아졌으며, 어머니와 정신지체 자녀관계의 질은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과 일차적 보호제공자인 어머니관계의 질이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현재까지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수행된 연구결과는 일관적으로 정신장애인가의 관계의 질이 어머니 또는 가족보호제공자의 돌봄만족감을 증진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됨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가족, 친지, 친구, 그리고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통해 받는 도움으로, 개인에게 필요한 정서적 지지와 직접적 도움, 활용 가능한 정보와 자원 등을 제공받는 것을 뜻한다. 이는 역경이나 어려움, 또는 예기치 못한 생활 사건들을 경험하는 개인과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자원으로 중요하다.

사회적 지지는 지지의 원천에 따라 공식적 및 비공식적 지지로 나눌 수 있다(Greenberg et al, 1993; Fink, 1995; Heller · Factor, 1993). 비공식적 지지란 가족, 친구, 친지, 이웃 등으로부터 받는 도움이나 원조를 의미하며, 공식적 지지란 지역사회내의 단체나 기관, 복지서비스체계로부터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지지의 내용에 따라 여러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존경, 애정, 신뢰, 관심을 주는 등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정서적 지지, 개개인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고 피드백을 주는 정보적 지지, 일을 대신해 주거나 돈, 물건, 선물을 제공하는 등 필요시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등의 유형적 지지/물질적 지지 등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Schaefer · Coyne · Lazarus, 1982; 박지원,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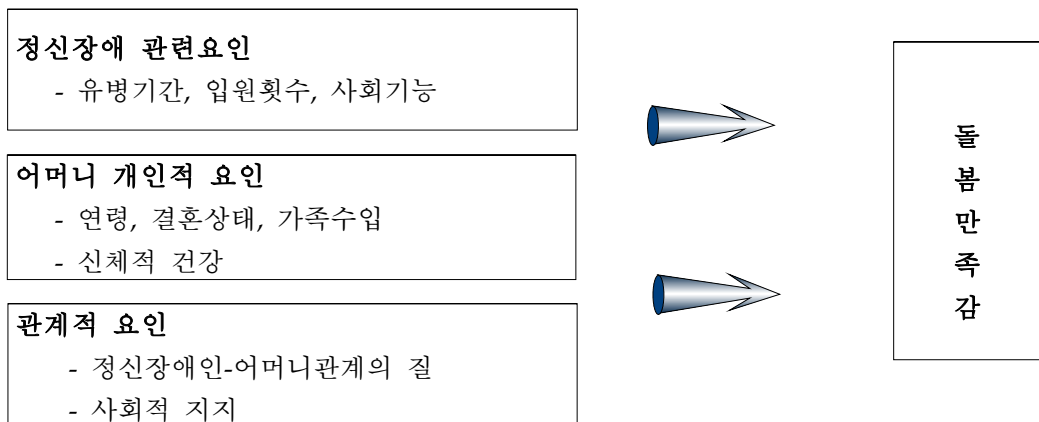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 및 가족원의 돌봄경험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은 공식적 및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부담감과 우울증상을 줄이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결과를 일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Reinhard, 1994; Hobbs, 1997; St-Onge, 1997; Song · Biegel · Milligan, 1997).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돌봄경험에 관한 긍정적 측면으로 돌봄만족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돌봄경험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서 '돌봄경험으로부터 얻은 것(caregiving gains)'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사회적 지지와의 영향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있다(Chen · Greenberg,



2004). 이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공식적 및 비공식적 지지로 나뉘어졌는데, 공식적 지지에는 정신건강전문가로부터의 지지가, 비공식적 지지에는 가족원의 도움, 지지집단 참여, 그리고 정신장애인이 가족원에게 제공하는 지지와 도움이 각각 포함되었다. 연구결과 전문가로부터의 공식적 지지와 가족, 지지집단, 그리고 정신장애인이 제공하는 비공식적 지지는 모두 가족원이 인식한 ‘돌봄경험으로부터 얻은 것(caregiving gains)’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식적 및 비공식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돌봄경험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또한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사회적 지지가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담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에 초점을 둔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돌봄경험의 긍정적 평가에도 직접적 영향력이 있음을 조명해 준 점에서 가치가 있는 연구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유추해볼 때 사회적 지지는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을 증진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실증연구가 부족하므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3) 연구의 분석틀



## 3. 연구방법

### 1) 연구대상자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로서 정신장애인과 함께 동거하며 일차적 보호제공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이다. 연구대상자의 선정은 서울과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유병기간이 2년 이상<sup>1)</sup>이며, 현행 장애인복지법(2005)<sup>2)</sup>에서 규정하는 정신장애인으로 만 18

1) 정신장애인의 유병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한 것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신장애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세 이상 - 60세 이하인 성인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로 하였으며, 조사 시점에서 입원치료 중인 자의 어머니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2005년 7월 11일~9월 29일까지였으며, 표집방법은 비확률표집 가운데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였다. 표집과정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를 찾아 개별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인지역의 등록된 모든 사회복지시설, 지역정신보건센터 및 대학종합병원의 낮병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대한 협조를 의뢰하여 이를 수락한 기관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사회내의 시설 가운데 주거시설은 정신장애인과 어머니가 함께 동거하지 않으므로 조사대상 기관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조사를 수락한 기관에는 사회복지시설이 20개소, 지역정신보건센터가 14개소, 그리고 낮병원이 6개소로 총 40개소의 기관이 포함되었다. 설문조사는 가족모임이 있는 날 연구자가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거나 또는 기관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 가운데 정신장애인의 어머니가 응답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리고 무응답이 많은 설문지 등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총 231부의 설문지가 연구의 최종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 2) 변수구성 및 측정도구

### (1) 종속변인: 돌봄만족감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돌봄만족감이다. 돌봄만족감은 보호제공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긍정적 정서와 보호제공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의미부여로서 보호제공을 개인적 만족과 보상 및 기쁨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며, 자기성장과 강점발견의 과정으로 의미부여하는 것을 일컫는 개념이다.

돌봄만족감에 대한 측정은 '돌봄만족감척도(Care work satisfaction scale, Orbell et al, 1993)' 6문항에 정신장애인의 가족원을 대상으로 돌봄만족감을 측정한 연구(Szmukler et al, 1996; Schwartz · Gidron, 2002)에서 사용된 척도의 문항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족원의 자기성장과 강점발견 측면을 질문하는 2문항을 추가하여 총 8문항의 척도로 이루어졌다. '돌봄만족감척도(Care work satisfaction scale)'는 보호제공자가 돌봄경험으로부터 얻는 만족, 보상, 기쁨, 가치감 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돌봄경험 평가척도(Caregiving impact appraisal Scale)'의 하위척도이다. 원척도의 측정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지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5점 척도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sup>3)</sup> 5점 척

<sup>3)</sup> '최소한 1년 이상'의 치료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DSM-III-R에서는 만성정신장애를 발병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이 경과된 상태(양옥경, 1996)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2) 현행 장애인복지법(2005)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은 국제질병분류표 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라 ICD-10의 F20 정신분열병, F25 분열형정동장애, F31 양극성정동장애, F33 반복성 우울장애를 진단받은 자로서 최소한 1년 이상의 지속적 병원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된 자로 규정된다.
- 3) 7점 척도를 5점 척도로 전환하여 사용한 이유는 7점 척도 사용 시 각 응답 항목들이 7단계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항목들 간의 실제적 차이를 명확하게 서술하고 전달하는 것이 어려워 응답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의 경우 노

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반반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었다. 돌봄만족감 척도에 추가된 항목은 '돌봄경험을 통해 나의 강점을 발견하게 되었다.'와 '돌봄경험은 나를 인간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했다.'의 2문항이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경험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만족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돌봄만족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911이었다. 구조방정식모형인 Amos 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척도를 구성하는 각 항목들이 돌봄만족감의 개념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돌봄만족감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8문항 모두 표준화된 경로계수가 .60~.84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측정모델의 적합도 지수는 CFI .979, TLI(NNFI) .962, 그리고 NFI .975로 모두 .90이상으로 나타나 척도의 개념구성타당도와 측정모델이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sup>4)</sup>.

## (2) 독립변인

### ① 정신장애 관련요인

#### 가. 유병기간 및 입원횟수

정신장애인의 유병기간과 입원횟수는 최초 진단을 받은 발병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유병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입원횟수를 의미하며, 이를 연구대상자가 직접 기록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 나. 정신장애인의 사회기능

정신장애인의 사회기능이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수행하는 기능적 능력의 손상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생활기술척도(Life Skill Profile, Rosen · Hadzi-Paviovic · Parker, 1989)'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기능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 정신장애인의 가족원이나 정신보건 전문가가 이를 측정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척도는 총 39문항이며, 하위영역은 정신장애인의 자기관리 영역(10문항), 행동자제력영역(12문항), 사회적 접촉영역(6문항), 의사소통영역(6문항), 그리고 책임감영역(5문항)의 5개 차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측정은 4점 리커트척도로 이루어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장애인의 사회기능 수준이 낮고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생활 적응에 부적합한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사회기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915로 나타났다. 각 하위영역의 신뢰도 계수는 자기관리영역이 .830, 행동자제력영역이 .835, 사회적접촉영역이 .858, 의사소통영역이 .755, 책임감영역이 .715이었다.

### ② 어머니의 개인적 요인

어머니의 연령, 결혼상태, 가족수입, 신체적 건강상태는 이를 질문하는 1문항으로 각각 측정되었다. 어머니의 결혼상태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유무로 측정되었는데,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

년기에 해당하는 고령자 집단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점 척도의 사용은 답변 시 불필요한 복잡성을 야기하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7점 척도 대신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4) CFI, TLI(NNFI), NFI 등의 지수는 구조방정식모형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90이상의 값을 가질 때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분석한다(홍세희, 2000; 배병렬, 2002).

가 1로,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0으로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였다. 가족수입은 1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상까지 6점 척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수입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측정하였다. 어머니의 신체적 건강은 '전반적으로 볼 때 귀하의 신체건강 상태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 문항에 '매우 좋지 못한 편이다'(1점) ~ '매우 좋은 편이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하도록 측정하였다.

### ③ 관계적 요인

#### 가. 정신장애인과 어머니관계의 질

정신장애인과 어머니관계의 질이란 정신장애인과 어머니의 정서적 유대감으로 신뢰, 애정, 이해, 지지, 의사소통, 수용, 공감 등이 있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정신장애인과 어머니관계의 질은 '친밀감 척도(Intimacy Scale, Walker · Thompson, 1983)'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구성원간의 상호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원척도에서 측정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지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5점 척도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장애인과 어머니의 관계가 좋고 친밀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관계가 좋지 못하고 친밀감이 낮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34로 높게 산출되었다.

#### 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가족, 의미 있는 타자 및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서적 지지와 실제적 도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척도(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Scale, Zimet · Dahlem · Zimet · Farley, 1988)'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4문항은 가족원으로부터, 4문항은 의미 있는 타자로부터, 그리고 나머지 4문항은 친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지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5점 척도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의미 있는 타자 및 친구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도가 빈약하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05로 산출되었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 조사대상자와 조사대상자가 돌보는 정신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는 기술적 분석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와 정신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돌봄만족감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Oneway-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가 인식하는 돌봄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에 투입된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으며,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돌봄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1단계로 정신장애와 관련된 요인인 정신장애인의 유병기간, 입원횟수 및 사회기능이 투입되었다. 2단계로 어머니의 개인적 요인인 연령, 결혼상태, 가족수입 및 건강상태가 투입되었다. 3단계로는 정신장애인과 어머니와의 관계의 질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4단계로 사회적 지지가 투입되어 돌봄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설명력을 각각 분석하였다.

## 4. 결과분석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령대 분포에서는 50대와 60대가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평균연령은 60.5세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60세 이상의 노년기에 접어든 어머니들이었다. 결혼 상태는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기혼자가 전체의 69.7%로 가장 많았으며, 사별한 자의 비율이 24.2%로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 전체의 38.1%로 가장 많았으나, 무학과 초등학교졸업의 낮은 학력 수준을 보이는 비율도 전체의 24.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대졸이상의 학력 수준을 가진 어머니의 비율은 16.9%이었다. 직업은 주부인 경우가 77.1%로 대다수가 이에 해당하였는데, 이는 조사대상자인 어머니들의 과반수 이상 연령대가 60세 이상으로 생산연령층에 속하는 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및 판매직과 생산 및 노무직의 비율이 다소 높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월평균 수입은 100만원 이하인 자가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 이하인 자와 100-200만원 미만인 자를 합한 비율이 전체의 63.2%로 나타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구에 속한 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족수입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2.6%정도로 매우 적은 분포를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종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lt;표 1&gt; 정신장애인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변수		사례수(%)
연령대	40대	27(11.7)
	50대	87(37.7)
	60대	75(32.5)
	70세 이상	42(18.2)
	평균: 60.5세(최소:42세, 최대:82세), 표준편차(8.8세)	
결혼상태	기혼	161(69.7)
	별거/이혼	8(3.5)
	사별	56(24.2)
	기타(재혼/동거)	6(2.6)
학력	무학	18(7.8)
	초등학교졸	36(16.9)
	중졸	33(14.3)
	고졸	88(38.1)
	전문대졸	9(3.9)
	대졸	37(16.0)
	대학원이상	2(0.9)
직업	주부	178(77.1)
	회사원	3(1.3)
	생산 및 노무직	12(5.2)
	서비스 및 판매직	15(6.5)
	자영업	10(4.3)
	전문직 및 관리직	2(0.9)
	기타	10(4.3)
수입	100만원 이하	86(37.2)
	100-200만원 미만	60(26.0)
	200-300만원 미만	46(19.9)
	300-400만원 미만	16(6.9)
	400-500만원 미만	8(3.5)
	500만원 이상	6(2.6)
종교	기독교	98(42.4)
	천주교	42(18.2)
	불교	48(20.8)
	무교	35(15.2)
	기타	6(2.6)

## (2) 정신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가 돌보는 정신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은 남성인 경우가 전체의 58.9%로 여성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는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대, 40대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50대에 속하는 자는 11명(4.8%)으로 가장 적은 빈도로 나타났고, 정신장애인의 평균연령은 33.4세였다. 직업은 무직인 경우가 전체의 68.8%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자의 비율이 24.2%였고, 일부만이 시간제 또는 정규직 근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207명(89.6%)으로 대다수가 이에 속하였으며, 기혼인 경우나 이혼 또는 별거 중인 자가 소수 포함되어 있었다. 학력은 고졸이 122명(52.8%)으로 과반수 정도가 이에 속하였으며,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중퇴한 경우도 각각 약 10%가량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장애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사례가 많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해볼 수 있겠다. 진단명은 정신분열증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양극성 또는 분열형 정동장애, 우울장애의 진단을 받은 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평균 유병기간은 11.6년이었으며, 20년 이상의 유병기간을 가진 자도 11.3%가 포함되어 있었다. 평균 입원횟수는 3.5회이었으며, 입원횟수가 3회 이하인 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lt;표 2&gt; 정신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변수		사례수(%)
성별	남성	136(58.9)
	여성	95(41.1)
연령	19-29세	84(36.4)
	30-39세	93(40.3)
	40-49세	43(18.6)
	50-59세	11(4.8)
	평균: 33.4세(최소:19세, 최대: 59세), 표준편차: 8.1세	
직업	무직	159(68.8)
	직업훈련	56(24.2)
	시간제근무	7(3.0)
	정규직근무	3(1.3)
	기타	6(2.6)
결혼상태	미혼	207(89.6)
	기혼	5(2.2)
	이혼/별거	19(8.2)
학력	중졸이하(고교중퇴)	22(9.5)
	고졸	122(52.8)
	전문대중퇴	12(5.2)
	전문대졸	30(13.0)
	대학중퇴	25(10.8)
	대졸	17(7.4)
대학원이상	1(0.4)	

&lt;표 2&gt; 계속

진단명	정신분열병	195(84.4)
	분열형정동장애	12(5.2)
	양극성정동장애	16(6.9)
	우울장애	8(3.5)
유병기간	5년 이하	59(25.5)
	6-10년	57(24.7)
	11-15년	47(20.3)
	16-20년	37(16.0)
	21년이상	26(11.3)
	평균: 11.6년, 표준편차: 7.2년 (최소: 2년, 최대: 39년)	
입원횟수	0-3회	148(64.1)
	4-6회	40(17.3)
	7-9회	12(5.2)
	10회 이상	17(7.4)
	평균: 3.5회, 표준편차: 3.5회 (최소:0회, 최대:25회)	

## 2) 돌봄만족감 수준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의 돌봄만족감 수준을 각 항목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는 기술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돌봄만족감을 측정한 항목 가운데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는 것은 ‘돌봄경험을 통해 인간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된 것’(3.45점)이었으며, 다음 순으로는 ‘돌봄경험이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해 준 것’(3.20점)과 ‘돌봄경험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게 된 것’(3.1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들이 돌봄경험을 인간적으로 더욱 성숙할 수 있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게 되는 등 긍정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도록 한 것으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돌봄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치감을 느끼는 것’(3.08점)과 ‘돌봄경험을 보람 있는 것으로 느끼는 것’(3.07점)으로 2항목 모두 평균 3점이 조금 넘는 점수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이들 항목과 비교할 때 돌봄경험 자체로부터 얻는 기쁨이나 행복 등 긍정적 정서를 질문한 문항들은 평균 3점미만으로 다소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속하는 항목에는 ‘돌봄경험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것’(2.98점), ‘돌봄경험이 기쁨으로 느껴지는 것’(2.86점), 그리고 ‘돌봄경험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것’(2.70점)이 포함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은 평균 3.06점으로 5점 척도에서 중간점수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돌봄경험에 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돌봄경험을 강점발견과 인간적 성숙의 과정으로 인식하여 만족감을 느끼는 수준이 돌봄경험 자체를 통해 얻게 되는 기쁨이나 행복 등 긍정적 정서의 수준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돌



봄만족감을 측정된 각 항목들의 표준편차는 1점이 조금 넘었으며, 전체 돌봄만족감의 표준편차도 0.8 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연구대상자들 간의 돌봄만족감 수준의 편차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돌봄경험을 긍정적인 것으로 의미부여를 하는 어머니들과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 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과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표 3>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의 돌봄만족감 수준

문항 내용	평균	표준편차
1. ○○○를 돌보는 일은 내가 나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해준다.	3.2035	1.0579
2. ○○○를 돌보는 책임은 내게 중요한 만족감을 준다.	2.9870	1.1115
3. ○○○를 돌보는 일은 내가 가치 있게 느껴지도록 해준다.	3.0877	1.1307
4. ○○○를 돌보는 일은 내게 기쁨이 된다.	2.8640	1.0759
5. 나는 ○○○를 돌본 일들이 보람 있다고 느낀다.	3.0783	1.0950
6. ○○○를 돌보는 일은 나를 행복하게 한다.	2.7087	1.1007
7. ○○○를 돌보는 경험을 통해 나의 강점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3.1703	1.1128
8. ○○○를 돌보는 경험은 나를 인간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했다.	3.4545	1.1136
평 균	3.0685	0.8605

### (3) 정신장애인과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돌봄만족감 차이

정신장애인과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의 돌봄만족감 수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정신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돌봄만족감 수준을 살펴보면, 분석결과 정신장애인의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직업유무에 따라 어머니의 돌봄만족감 수준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장애와 관련된 특성인 진단명, 유병기간 및 입원횟수에 따른 어머니의 돌봄만족감 수준의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하여 돌봄만족감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대,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유무 및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수입에 따른 돌봄만족감 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집단과 300만원 이상인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수입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 보다 돌봄만족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수입은 연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에 속한 어머니의 경우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어머니보다 정신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자신의 역할에 상대

적으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제시해준다.

<표 4> 정신장애인과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돌봄만족감 차이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정신장애인 성별	남성	136	3.1030	.8412	.727	.468
	여성	95	3.0192	.8905		
정신장애인 연령대	20대	83	3.0935	.8339	.198	.204
	30대	93	3.0234	.8242		
	40대	43	3.0853	.9158		
	50대	11	3.1932	1.2085		
정신장애인 교육수준	중졸 이하	22	3.0985	.9592	.785	.457
	고졸	134	3.1283	.8189		
	전문대졸 이상	73	2.9721	.9077		
정신장애인 직업유무	무직	159	3.0118	.8708	1.492	.137
	직업훈련/취업	72	3.1938	.8310		
정신장애인 진단명	정신분열증	195	3.0568	.8713	-480	.631
	정동/우울장애	36	3.1319	.8109		
정신장애인 유병기간	10년 이하	116	3.0860	.8442	.361	.718
	11년 이상	110	3.0442	.8956		
정신장애인 입원횟수	5회 이하	181	3.0806	.8358	-279	.780
	6회 이상	36	3.1240	.9272		
어머니 연령대	40대	27	3.1303	.8163	.265	.851
	50대	87	3.0072	.8474		
	60대	75	3.1152	.7969		
	70대 이상	42	3.0724	1.0336		
어머니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67	3.0057	.8032	1.800	.073
	사별/이혼	64	3.2324	.9839		
어머니 교육수준	중졸이하	90	3.1993	.9482	1.692	.187
	고졸	88	3.0175	.7725		
	전문대졸 이상	48	2.9449	.8300		
어머니 직업유무	주부	178	3.1041	.8700	1.130	.260
	직업 있음	52	2.9505	.8344		
어머니 종교유무	무교	41	3.0152	.8511	-405	.686
	종교있음	188	3.0755	.8668		
가족수입	100만원 미만+	86	3.2175	.8836	3.119	.046*
	100-300만원미만	106	3.0330	.8475		
	300만원 이상+	30	2.7750	.8429		

\* p<. 05, +사후검증(scheffe test) 결과 차이가 유의미한 집단

## (4) 상관관계분석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연구모형에 투입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각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정신장애 관련요인으로는 정신장애인의 사회기능이, 어머니의 개인적 요인으로는 가족수입, 신체적 건강이, 그리고 관계적 요인으로는 정신장애인과 어머니관계의 질과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돌봄만족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인으로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사회기능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이 낮아졌으며, 가족수입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신체적 건강이 좋을수록, 정신장애인과 관계가 더 좋을수록, 주변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돌봄만족감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모형에서 독립변인으로 투입된 각 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연령과 정신장애인의 유병기간 간에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으나  $r < .8$ 이며, VIF가 어머니의 연령이 2.27, 정신장애인의 유병기간이 2.28로 각각 10이하인 값을 가져 다중공선성이 있는 변인으로 간주하지 않았다.<sup>5)</sup> 일반적으로 정신장애인이 긴 유병기간을 가지는 경우 상대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연령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한 결과이며, 어머니의 연령과 정신장애인의 유병기간은 개념적으로도 서로 확연히 구분되는 변인이므로 두 변인을 모두 연구모형에 포함시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lt;표 5&gt; 각 변인들 간 상관관계분석

	돌봄 만족감	유병기간	입원횟수	사회기능+	어머니 연령	가족수입	어머니 건강상태	관계의 질	사회적 지지
돌봄 만족감	1								
유병기간	-.020	1							
입원횟수	.096	.440***	1						
사회기능+	-.179**	.039	-.044	1					
어머니 연령	.007	.718***	.359***	.010	1				
가족수입	-.157*	-.292***	-.184**	.070	-.330***	1			
어머니 건강상태	.169*	-.162*	-.103	-.298***	-.188**	.278***	1		
관계의 질	.519***	-.090	.025	-.350***	-.114	-.050	.225**	1	
사회적 지지	.394***	-.025	.069	-.196**	-.103	.096	.205**	.391***	1

\* $p < .05$ , \*\* $p < .01$ , \*\*\* $p < .001$ , +점수가 높을수록 기능수준이 낮음을 의미함

5) 일반적으로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지수가  $r > .8$ , VIF 값이 10이상인 경우에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김두섭·강남준, 2000).

## (5) 돌봄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먼저 1단계로 정신장애 관련 요인인 정신장애인의 유병기간, 입원횟수, 사회기능이 투입되었다. 분석결과 정신장애인의 사회기능만이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으며, 전체 모델의 돌봄만족감에 대한 설명력은 3% 정도로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2단계 분석에서는 어머니의 개인적 요인으로 연령, 결혼상태, 가족수입 및 신체적 건강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었다. 돌봄만족감에 대한 예측요인으로는 가족수입과 어머니의 신체적 건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가족수입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신체건강이 좋을수록 돌봄만족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수입이 낮을수록 돌봄만족감을 더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신장애인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벌거 등(Bulger et al, 1993)의 연구와 뇌졸중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을 대상으로 한 김용재 외(2004)의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이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에서 돌봄경험에 부여하는 긍정적 의미가 더 높다는 사실을 제시해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정신장애인의 사회기능은 어머니의 개인적 요인이 추가되자 돌봄만족감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돌봄경험의 긍정적 측면’을 측정한 스머클러(Szmukler et al, 1996)의 연구에서 정신장애인의 사회기능은 보호제공자가 인식한 긍정적 돌봄경험에 유의미한 직접적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검토해볼 때 정신장애인의 사회기능은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에 직접적 영향력은 가지지 않지만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통해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력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다. 어머니의 개인적 요인이 추가된 2단계 회귀모델은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을 11.3% 설명하였으며,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3단계 분석에서는 관계적 요인 가운데 정신장애인과 어머니관계의 질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었다. 분석결과 정신장애인과 어머니관계의 질은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파악되었으며, 돌봄만족감에 대한 설명력을 22.4%나 추가적으로 향상시켰다. 즉, 정신장애인과 어머니관계의 질은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2단계 분석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결혼상태가  $p < .05$ 수준에서 돌봄만족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별하였거나 이혼하여 배우자 없이 정신장애인과 함께 사는 경우일수록 돌봄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결혼상태의 돌봄만족감에 대한 영향력을 해석해보면,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배우자 없이 정신장애인과 함께 사는 경우 아내로서의 역할이 자연적으로 소멸되므로 어머니들이 자신의 존재의미를 찾는 역할을 정신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일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고, 관심과 정성을 쏟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긍정적 결과로서 돌봄만족감을 느끼는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정신장애인과 어머니관계의 질이 추가된 3단계 분석에서 전체 회귀모델은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을 33.7% 설명하였으며,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마지막 단계로 4단계 분석에서 어머니가 가족, 친구 및 의미 있는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받는 사회적 지지가 추가적으로 투입되었다. 분석결과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검증되었으며, 전체 돌봄만족감에 대한 설명력을 5% 더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검증된 변인에는 어머니의 결혼상태, 가족수입 및 정신장애인과 어머니관계의 질과 사회적 지지가 포함되었다. 어머니의 신체적 건강은 사회적 지지 변인이 추가되자 돌봄만족감에 대한 영향력이 다소 감소하였으며,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p < .067$ ). 결과적으로 전체 회귀모델은 돌봄만족감을 38.7% 설명하였으며,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상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은 정신장애인의 유병기간이나 입원횟수, 사회기능 등 정신장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인에 의해 설명되기 보다는 정신장애인과 관계의 질과 가족, 친구 및 의미 있는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받는 사회적 지지, 그리고 결혼 상태와 가족수입 및 신체적 건강 같은 어머니의 개인적 요인에 의해 예측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돌봄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B	p	B	p	B	p	B	p
정신장애 관련 요인	절편	3.645	.000	3.440	.000	1.252	.058	.725	.265
	유병기간	-.006	.545	-.006	.627	.000	.977	-.002	.826
	입원횟수	.026	.159	.024	.188	.014	.373	.009	.551
	사회기능	-.337	.023	-.185	.246	.138	.338	.175	.211
어 머 니 개 인 적 요 인	연령			-.003	.807	-.002	.837	-.001	.901
	결혼상태			-.211	.149	-.313	.015	-.355	.004
	가족수입			-.132	.014	-.086	.064	-.093	.039
	어머니신체 건강상태			.195	.004	.132	.026	.105	.067
관 계 적 요 인	정신장애인- 어머니 관계의 질					.530	.000	.452	.000
	사회적지지							.256	.000
R <sup>2</sup>		.036		.113		.337		.387	
R <sup>2</sup> change				.077		.224		.050	
F		2.613		3.493		12.089		13.239	
p		.052		.002		.000		.000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일차적 보호제공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돌봄경험으로부터 얻는 돌봄만족감의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돌봄만족감 평균은 5점 척도에서 중간점수인 3점을 조금 넘는 정도로 산출되어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들이 자신의 돌봄경험에 부여하는 긍정적 의미와 만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담감 중심의 기존 정신장애인 가족관련 연구가 간과한 돌봄경험의 긍정적 측면을 조명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 분석결과 특히 정신장애인의 어머니들은 돌봄경험을 통해 인간적으로 더 성숙하게 되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게 되는 등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측면이 다른 항목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역경과 어려움의 과정이 될 수 있는 돌봄경험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며, 역경을 통해 더 성장하는 인간의 능력에 기반을 둔 것으로 강점관점 및 레질리언스 접근에 부합하는 이론적 함의를 갖는 발견이라 할 수 있겠다.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4단계로 실시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최종모델에서 어머니의 결혼상태, 가족수입, 정신장애인과 관계의 질,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에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 모형에 투입된 변인들은 종속변인인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을 38.7%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배우자 없이 정신장애인과 동거하며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경우일수록, 가족수입이 낮을수록 돌봄만족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장애인과 관계가 좋을수록, 가족, 친구 및 의미 있는 타자와의 관계를 통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돌봄만족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과 어머니관계의 질은 국내 정신장애인 관련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한 변인이었으나 본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을 예측하는데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 중요한 변인으로 파악되어 어머니의 돌봄만족감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실천의 함의를 제공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더불어 어머니가 가족, 친구 및 의미 있는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받는 사회적 지지 또한 돌봄만족감에 대한 예측요인으로 중요하게 나타나 사회복지실천에서 어머니를 지지해줄 수 있는 자원체계를 강화하는 개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시사해주었다. 특히 사회적 지지는 선행연구에서 가족보호제공자의 부담감을 줄여주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주로 연구되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부담감뿐 아니라 돌봄제공에 대한 만족감을 증진하는데도 기여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신체적 건강은 사회적 지지가 투입되자 최종모델에서 돌봄만족감에 대한 영향력이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B = .105, p = .065$ ) 2단계와 3단계의 회귀분석모델에서는 돌봄만족감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어 돌봄만족감을 예측하는데 간과되어서는 안 될 의미 있는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바탕을 두고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실천적 함의가 제시되었다. 첫째, 정신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돌봄경험이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과정만이 아니라 만족과 보상이 있고, 인간적

인 성숙과 강점을 발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의 전환과 실천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강점관점에 기반 한 사회복지실천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 및 가족원에 대한 실천적 개입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의 관심이 더욱 요청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정신장애인의 어머니들이 돌봄경험 속에서 긍정적 의미를 찾고 돌봄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개입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들의 돌봄만족감을 증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신장애인과 어머니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임상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정신장애인과 어머니가 함께 참여하여 건강한 의사소통과 문제해결의 방법을 배우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집단프로그램 및 가족프로그램의 실시가 효과적일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정신장애인과 어머니관계는 상호적인 것이므로 사회기술훈련이나 일상생활기술훈련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이 일상생활 가운데 가사일을 돕거나 어머니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등 노년기에 이른 어머니를 실제적 및 정서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도 어머니와 정신장애인 간 관계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셋째, 어머니가 가족, 친구 및 의미 있는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받는 사회적 지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개입이 필요하다.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을 증진하는 요인으로 중요하므로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가 가족, 친구 및 의미 있는 타자와의 유대관계를 증진하여 정서적 지지와 정신장애인을 돌보는데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천적 개입이 더욱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들이 자신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관심을 갖고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들은 자녀의 건강상태에만 관심을 갖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헌신적 노력을 하는 반면, 노년기에 이른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리에 소홀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어머니들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관심을 갖고 이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도움과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제시된 사회복지실천의 개입 방안들은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들의 돌봄만족감을 증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하는데 까지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연구대상자의 선정과정에서 확률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지역정신보건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낮병원을 중심으로 비확률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둘째, 돌봄만족감과 관련한 국내 연구가 부족하며, 외국 연구의 경우 사용된 척도가 각기 다르므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돌봄만족감의 수준을 다른 집단과 비교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연구의 제한점으로 제시된다. 셋째, 본 연구모형의 구성에서 어머니의 인성, 개인내적 자질, 그리고 영성 등과 관련된 요인들을 포함시키지 못한 것도 연구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개인의 내적 자질이나 영성 등의 특성은 강점관점 및 레질리언스 접근에서 중요한 특성으로 돌봄경험과 같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역경이나 어려움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데 영향력이 있을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들의 개인내적 자질이나 영성 등의 특성들이 돌봄만족감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에 관해서까지 연구의 폭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정신지체나 발달장애 및 신체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를 대상

으로 돌봄만족감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의 돌봄만족감과 비교분석해보는 연구도 시도해볼 만하다.

비록 이와 같은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돌봄만족감이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들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돌봄경험의 긍정적 측면으로 실재하는 것임을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사회복지실천의 중요한 과제는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들이 돌봄경험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만족감을 발견하며, 이를 증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며, 이에 대한 실천적 효과성을 검증하여 강점관점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과 연구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이라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강동호·김철권·변원탄. 1995. “정신분열병 환자 가족의 객관적·주관적 부담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4(1): 193-203.
- 김두섭·강남준. 2000. 『회귀분석』. 나남출판.
- 김용재·현경자·유정화. 2004. “뇌졸중 환자 부양자의 긍정적 경험: 부양만족과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대한신경과학회지』 22(6): 590-597.
- 김윤정·최혜경. 1993. “장애기간과 부양자의 대처자원이 부양자의 부담 및 부양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3(2): 63-83.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연구”.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 배병렬. 2002. 『구조방정식모델 이해와 활용』. 도서출판 대경.
- 보건복지부. 2005. 『장애인복지법령집』. 보건복지부.
- 손명자·박동건·최영희·이선희·배정규. 2001. “정신장애인 기능평가도구 개발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4): 731-749.
- 양옥경. 1995. “정신장애인 가족에 관한 연구-가족의 보호부담, 대처기제, 서비스욕구를 중심으로”. 『신경정신의학』 34(3): 809-829.
- 양옥경. 1996. 『지역사회정신건강』. 나남출판.
- 양옥경. 2000. “의존성 노인의 부양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논총』 5: 167-190.
- 이정식·김광일·오동열. 1991. “정신병환자 가족의 걱정요인에 관한 조사”. 『신경정신의학』 30(3): 517-530.
- 정 민. 1995. “정신분열증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경험에 관한 해석적 접근”. 『간호학탐구』 4(2): 87-119.
- 최혜경. 2000. “성인 정신분열증 환자 가족의 정신건강: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자극, 자원, 보호상황에 대한 인식이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5: 277-298.
- 홍순원·이병옥·이수일. 1994. “정신병 환자가족의 심리적 반응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3(1): 117-129.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특별기고>”. 『한국임상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Baronet, A. M. 2003. “The impact of family relations on caregiver’s positive and negative appraisal of their caretaking activities.” *Family Relations* 52(2): 137-142.



- Bulger, M. W., A. Wandersman, and C. R. Goldman. 1993. "Burdens and gratifications of caregiving: Appraisal of parental care of adults with schizophrenia."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3: 255-265.
- Chen, F., and J. S. Greenberg. 2004. "A positive aspect of caregiving: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caregiving gains for family members of relatives with Schizophrenia."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0(5): 423-435.
- Cook, J. A., B. J. Cohler, S. A. Pickett, and J. A. Beeler. 1997. "Life-course and severe mental illness: implications for caregiving within the family of Later Life." *Family Relations* 46: 427-436.
- Farran, C. J. 1997. "Theoretical perspectives concerning positive aspects of caring for elderly persons with dementia: stress/adaptation & existentialism". *The Gerontologist* 37(2): 250-256.
- Fink, S. V. 1995. "The influence of family resources and family demands on the strains and well-being of caregiving families." *Nursing Research* 44(3): 139-145.
- Greenberg, J. S., M. M. Seltzer, and J. R. Greenley. 1993. "Aging parents of adults with disabilities: the gratifications and frustrations of later-life caregiving". *The Gerontologist*. vol. 33(4). 542-550.
- Greenberg, J. S., Greenley, J. R., and P. Benedict. 1994. "Contributions of patient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to their families." *Hospital and Community Psychiatry* 45: 475-480.
- Greenberg, J. S. 1995. "The other side of caring: Adult children with mental illness as supports to their mothers in later life." *Social Work* 40(3): 414-423.
- Hatfield, A. B., and H. P. Lefley. 1993. *Surviving Mental Illness: Stress, Coping and Adapta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Heller, T., and A. Factor. 1993. "Aging family caregivers: support resources and changes in burden and placement desire."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98(3): 417-426.
- Hobbs, T. R. 1997. "Depression in the caregiving Mothers of Adult Schizophrenics: A test of the Resource Deterioration Model."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33(5): 387-399.
- Lawton, M. P., M. Moss, M. H. Kleban, A. Glicksman, and M. Rovine. 1991. "Two-factor model of caregiving apprais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Gerontology* 46(4): 181-189.
- Miltiades, H. B., and R. Pruchno. 2002. "The effects of religious coping on caregiving appraisals of mothers of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Gerontologist* 42(1): 82-91.
- Noonan, A. E. and S. L. Tennstedt. 1997. "Meaning in caregiving and its contribution to caregiver well-being." *The Gerontologist* 37(6): 785-794.
- Orbell, S., N. Hopkins, and B. Gillies. 1993. "Measuring the impact of informal caring."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3: 149-163.

- Picot, S. J. 1995. "Rewards, costs, and coping of African American caregivers." *Nursing Research* 44(3): 147-152.
- Pruchno, R., J. H. Patrick, and C. J. Burant. 1997. "African American and white mothers of adults with chronic disabilities: caregiving burden and satisfaction." *Family Relations* 46: 335-346.
- Reinhard, S. C. 1994. "Living with mental illness; Effect of professional support and personal control on caregiver burden."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17: 79-88.
- Rosen, A., D. Hadzi-Paviovic, and G. Parker. 1989. "The Life Skills Profile: A measure assessing function and disability in schizophrenia." *Schizophrenia Bulletin* 15(2): 325-337.
- Schaefer, C., J. C. Coyne, and R. S. Lazarus. 1982. "The health related function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 381-406.
- Schwartz, C., and R. Gidron. 2002. "Parents of mentally ill adult children living at home: rewards of Caregiving." *Health & Social Work* 27(2): 145-154.
- Schwartz, C. 2003. "Parents of children with chronic disabilities: the gratification of caregiving." *Families in Society* 84(4): 576-584.
- Schwarz, K. A. 1999. "A study of the relationship of caregiving appraisal to depressive symptomatology and home care utilization." *Journal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6(2): 95-108.
- Seligman, M. 2002.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prevention, and positive therapy." pp.3-9. in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edited by C. R. Snyder and S. J. Lopez. Oxford university press.
- Smith, G. C. 1996. "Caregiving outcomes for older mothers of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 A test of the two-factor model of psychological well-being." *Psychology and Aging* 11(2): 353-361.
- Song, L., D. E. Biegel, and S. E. Milligan. 1997. "Predictors of Depressive symptomatology among lower social class caregivers of persons with chronic mental illnes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33(4): 269-286.
- St-Onge, M., and F. Lavoie. 1997. "The experience of caregiving among mothers of adults suffering from psychotic disorders: factors associated with their psychological distres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5(1): 73-94.
- Szmukler, G. I., P. Burgees, H. Herrman, A. Benson, S. Colusa, and S. Bloch. 1996. "Caring for relative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the development of the Experience of Caregiving Inventory." *Soc Psychiatry Psychiatr Epidemiol* 31: 137-148.
- Thompson, E. H., and W. Doll. 1982. "The burden of families coping with the mentally ill: An invisible crisis". *Family Relation* 31: 379-388.
- Walker, A. J., S. K. Martin, and L. L. Jones. 1992. "The benefits and costs of caregiving and care receiving for daughters and mother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 47: S130-139.
- Walker, A. J. and L. Thompson. 1983. "Intimacy and intergenerational aid and contact

- among mothers and daught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841-849.
- Zimet, G. D., N. W. Dahlem, S. G. Zimet, and G. K. Farley.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30-41.

## Factors Influencing to the Caregiving Satisfaction of Mothers of a Person with Mental Disorder

Kim, Yoen-Soo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mother's caregiving satisfaction of a person with mental disorder and factors influencing to it as a positive aspect of caregiving experience. A survey conducted upon 231 mothers who live together with their adult-children with mental disorder through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 social rehabilitation facilities and day hospitals. Collected data were analysed by t-test, Oneway-ANOVA, hiera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so 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mean of mother's caregiving satisfaction is 3.06 in 5 point scale. Among the total items of the caregiving satisfaction scale, the means of the items 'finding strength through caregiving' and 'personal growth through caregiving' are higher than any others. 2) In the final regression model,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to the caregiving satisfaction are 'the relationship quality between mothers and the mentally disordered',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family, significant others, and friends', 'marital status of mothers', and 'family income'. Better relationship quality between mothers and the adult children with mental disorder and higher social support from family, significant others, and friends explained higher caregiving satisfaction of mothers. The level of a widow or divorced mother's caregiving satisfaction is higher than married one. The less family income affected to higher caregiving satisfaction. Variables related to mental disorder of adult-children, such as social function, years of mental disorder and frequency of hospitalization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to mother's caregiving satisfaction. Through this research, the implications of social work practice were suggested in many ways.

Key words: caregiving satisfaction, positive aspects of caregiving, mothers of a person with mental disorder